# 10년의 기다림…打·打·打 호령하다

KIA 타이거즈의 김호령이 지난 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홈런을 친 뒤 밝은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김호령은 이날 프로 첫 만루홈런 등 첫 멀티포를 장식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신한 SOL Bank 2025 KBO리그

## '외야 핵심' KIA 김호령 방망이까지 터지며 존재감

### 프로 첫 그랜드슬램 등 멀티포…동료들 "완벽한 날"

10년을 기다린 KIA 타이거즈 김호령의 '방망이쇼'가 시작됐다.

KIA는 지난 2015년 동국대 출신의 김호령을 10라운드에서 호명했다. 수비 하나만을 보고 선택한 김호령은 기대 대로 '호령존'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KIA 외야에 핵심 선수가 됐다.

남다른 수비와 성실함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선수지만 타격은 늘 아쉬움이었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도 했다. 하지만 열정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호령은 지난해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타격 훈련을 하다가 옆구리 부상을 당하면서 '가을잔치'에 나서지 못했다. 지도자들의 간절함 바람과 노력과 달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많은 이들의 애를 태웠던 김호령이 '타석'에서도 경기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이범호 감독의 조언으로 타격 스탠스에 변화를 준 김호령은 타격 타이밍에도 신경 쓰면서 타석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월 3일 두산전에서 3안타를 장식했던 그는 6월 11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623일 만의 결승타를 기록했다. 김호령은 알짜배기 타격으로 6월 한 달 0.271의 타율을 기록했다.

하위타순에서 김호령이 움직이자 KIA의 화력도 살아났고, 뜨거운 6월을 보낼 수 있었다. 팀의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인 김호령의 방망이는 7월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일 SSG전에서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2개의 볼넷을 골라냈고, 3·4일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김호령은 5일에는 롯데를 상대로 3안타 맹타를 선보였다.

특히 2개의 공은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프로 첫 멀티포를 장식했다. 이 중 하나는 무사 만루 상황에서 나온 그랜드슬램이었다. 하루에 9루타 5타점을 쓸어 담은 김호령의 활약으로 KIA는 13-0 대승을 완성했다.

김호령은 "넘어갈 줄 몰랐다. 첫 홈런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 만루홈런도 전혀 생각을 안 했다. 어떻게든 주자를 불러들이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만루 때 점수 차도 많이 났고 그 전에 2안타를 쳤기 때문에 긴장감 보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마음도 편하니까 더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다"라고 잊지 못할 날을 이야기했다.

지켜보던 이들의 말을 잃게 한 김호령의 화력쇼. 휴식조로 덕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봤던 투수 전상현은 6일 "말도 안 된다. 사기다. 호령이 형이 1경기에 2개 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웃었다.

전상현은 김호령을 중심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는 타자들이 고맙다.

전상현은 "이틀 연속 말이 안 되는 경기들이었다. 특히 첫날은 쉽지 않았다. 내가 경기를 날렸는데, 그걸 역전시켜 줬다. 확실히 기세가 좋은 것 같다.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어제 같은 경기가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김호령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면서 홈런 세리머니를 준비했던 조재영 작전 코치도 "계속 잘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3루에서 넓은 시야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조재영 코치는 "타격 접근 방법을 보면 선구안이 나쁜 선수가 아니었다. 기술적으로 상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선구안이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은데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접근법을 보면 공을 잘 본다"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홈런이 곧 나올 것 같다고 세리머니를 만들자고 했다. (홈런 치고) 뛰면서 엄청 좋아하더라. 호령이가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김호령의 활약을 기뻐했다.

KBO레전드 최형우도 "완벽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김호령의 완벽한 날이었다.

최형우는 "누구나 하루는 미친 활약을 하는 날이 있다. 그걸 최대한 꾸준히 잘 지켜야 한다"며 "호령이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호령이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한 것을 못 봤는데 노력하니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김호령과 함께 후배들의 달라진 승부 근성과 결과에 최형우는 "상을 줘야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형우는 "후배들 타격하는 것 보면 이제 답답함도 풀린다. 냉정하게 우리 애들이 이 정도 왔으면 우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가 우리가 2달 동안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상상했겠나. 나도 생각을 안 했는데 말이 안 된다. 상 줘야 한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타이거즈 화력쇼 고맙다만 필승조에게도 기회 좀 주렴"

### 배팅볼 투수 자처 정재훈 코치, 타자들 활약에 함박웃음

타자들의 화력쇼에 정재훈 투수 코치가 웃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장단 17안타로 13-0 대승을 거뒀다. 고종욱의 1회말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시작으로 4일 경기에 이은 위즈덤의 연타석 홈런에 김호령의 만루포 포함 멀티포까지 터졌다.

7회 박찬호를 끝으로 선발타자 전원 안타가 완성됐고, 대타로 들어간 김석환도 안타를 기록하는 등 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타격이 이어졌다.

정재훈 코치입장에서는 땀 흘린 보람이 있는 하루였다.

이날 경기 전 '마무리 출신' 정재훈 코치는 배팅볼 투수를 자처했다. 땡볕에서 공을 던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그는 "던지면서 '너무 덥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에 도와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내심 타자들의 활약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4일 경기에서 전상현·조상우·정해영이 연투를 하면서 KIA는 이날 필승조 없이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롯데와의 중요한 순위 싸움이었던 만큼 타자들의 활약이 절실했던 날이었다.

"잘 칠 때가 돼서 타자들이 잘한 것이다. 내가 공을 던져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점수를 내주면 좋기는 한데, 매일 저렇게 내면 안 된다. 필승조도 나가야 한다"며 웃은 정재훈 코치는 "4일 경기에서 타자들이 잘 쳐서 역전을 한 게 이어져 온 것이다. 흐름이 좋다. 타자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타자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정재훈(오른쪽) 코치와 이호민 투수. 〈KIA 타이거즈 제공〉

초반 엇박자가 있었지만 타자와 투수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만들어가는 승리가 의미 있다. 4일 경기에서는 잘 던져왔던 전상현, 조상우가 흔들리면서 역전은 허용했지만 타자들이 8회 5점을 만들면서 재역전승을 연출했다.

5일에도 타자들이 맹활약을 해주자 마운드도 무실점 피칭으로 화답했다. 이날 선발 김도현은 13점 차의 리드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7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해 줬다. 이어 나온 이호민과 이형범도 실점 없이 8·9회를 처리하면서 KIA는 13-0의 완벽한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

정재훈 코치는 "도현이가 너무 잘했다. 점수 차가 많이 나는 경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이트한 점수 차라고 생각하면서 던져야 한다. 경기 전부터 '오늘은 9회다. 네 경기니까 9회까지 책임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너무 잘해줬다"고 말했다.

또 "호민이랑 형범이도 많이 좋아졌다. 기존 필승조가 지쳐 있는 상황에서 호민이, (성)영탁, (임)기영, 형범이도 올라왔고, (최)지민이도 좋아졌다. 전체적으로 불펜도 맞아가고 있다"며 "좋은 흐름 이어가야 한다. 부상 선수 없다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전반기 잘 마무리하면 후반기에는 원래 KIA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

## '72전73기' 박혜준, KLPGA 첫 우승컵

### 롯데 오픈 제패

신장 177㎝의 장신 골퍼 박혜준이 통산 73번째 대회 출전 만에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박혜준은 6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파72·668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5회 롯데 오픈(총상금 12억원)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를 합해 2언더파 70타를 쳤다.

그는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노승희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을 거머쥐었다.

박혜준은 라운드 초반 2위 그룹과 격차를 크게 벌렸다. 4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1.19m 옆에 붙이며 첫 버디를 낚았고 5번 홀(파4)에서도 감각적인 아이언샷으로 공을 홀 앞에 붙이며 연속 버디를 떨어뜨렸다.

반면 3라운드까지 박혜준과 한 타 차 2위 노승희는 전반에만 보기 3개를 범하며 뒤처졌다.

2위 그룹과 5타 차까지 격차를 벌린 박혜준은 전반 나머지 홀에서 추가 버디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타수를 잃지 않으면서 선두를 지켰다.

후반엔 2위권 선수들이 무서운 추격을 펼쳤고, 박혜준이 16번 홀(파4)에서 첫 보기를 범하면서 격차가 좁혀졌다.

앞서 경기를 펼친 이다연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낚아 박혜준과 격차를 한 타 차로 좁혔다.

아울러 박혜준과 같은 조로 나선 노승희는 18번 홀에서 샷 이글에 성공하며 공동 1위가 됐다.

그러나 박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18번 홀에서 0.37m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환호했다.

호주에서 주니어 시절을 보낸 박혜준은 2021년 8월 KLPGA 투어에 입회했으나 이듬해 시드를 잃고 2023년 드림투어(2부)에서 뛰었다.

지난해 정규투어에 복귀한 박혜준은 국내 개막전인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며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올 시즌엔 저조한 성적을 내다가 지난달 29일 막을 내린 맥콜·모나 용평 오픈에서 첫 톱10 성적인 공동 7위를 기록했고 이번 대회에서 마침내 축배를 들었다. 그는 우승으로 대상 포인트 순위를 49위에서 22위로, 상금 순위를 36위에서 12위(3억2949만4856원)로 끌어올렸다.

/연합뉴스